수신에서 호법신으로 거듭나
〈水神〉 〈護法神〉

사찰 속 숨은 친구찾기

⑧ 동양의 드래곤, 응룡(應龍)

용(龍)은 동양문화 속 최고의 동물로 알려져 있다. 이에 예로부터 황제와 군주를 용에 비유했으며 농경사회에서는 비를 내려주는 수신(水神)으로, 불교에서는 부처님을 수호하는 호법신(護法神)으로 등장한다. 용은 그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몸의 빛깔에 따라 청룡(靑龍)과 황룡(黃龍), 발가락 개수가 몇 개인지에 따라 삼조룡(三爪龍)과 오조룡(五爪龍) 등 그 구성은 천차만별이다.

그런데 이와 같은 용 가운데 날개가 달린 용이 확인된다. 박쥐 혹은 새 같은 두 날개를 활짝 펼친 모습은 마치 서양 중세문화의 산물인 드래곤(Dragon)을 연상케 한다. 이 용의 이름은 응룡(應龍) 혹은 비룡(飛龍)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응룡은 어떤 의미와 상징을 담고 있을까? '사찰 속 숨은 친구 찾기'에서 알아보도록 한다.


영천 은해사 백흥암 극락전 수미단의 응룡 부조상(조선 17세기).


김천 직지사 대웅전 사찰벽화 중 동자를 태운 응룡(조선 후기).

비를 내리는 수신

위에서 언급했듯 용은 물을 다스리는 수신으로 알려져 있다. 수신의 면모를 지닌 용을 우리는 용왕(龍王)이라고 부르며, 그 시작은 인도 불교의 뱀신 나가(Nāga)가 중국으로 전해져 정립된 〈법화경(法華經)〉 기록으로 알려져 있다. 〈법화경〉에는 총 8명의 용왕이 등장하는데, 그 구성은 난타(難陀)·발난타(跋難陀)·사가라(娑伽羅)·화수길(和修吉)·덕차가(德叉迦)·아나파달다(阿那婆達多)·마나사(摩那斯)·우발라(優鉢羅)로, 백천의 권속(眷屬)들과 함께하며 부처님을 찬양하고 땅이 메마르지 않도록 비를 내려주는 존재다. 우리나라 무속신앙에서 모시는 용왕 역시 이와 같은 〈법화경〉의 용왕의 영향을 받았고, 각종 민담에 등장하는 용왕 역시 동일한 사례다.

이렇듯 수신 역할을 하는 용은 불교에서 처음 시작된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불교 전래 이전부터 동양에는 물을 다루는 용이 등장하며 이것이 바로 응룡이다. 응룡이 기록된 가장 이른 사례는 〈산해경(山海經)〉으로 알려져 있다. 〈산해경〉은 중국 상고시대에 편찬됐다고 전해지는 지리 백과사전으로, 중국을 비롯해 주변의 다양한 민족과 풍습, 현실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상상 속 생명체까지 기록돼 있다. 여기서 응룡은 중국 전설 속 군주 삼황오제(三皇五帝)인 황제(黃帝) 헌원씨(軒轅氏) 에피소드에 등장하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치우(蚩尤)가 무기를 만들어 황제를 치자 황제가 응룡에게 기주지야(冀州之野)에서 그를 공격하게 했다. 이에 응룡은 물을 모았는데, 치우가 풍백(風伯)과 우사(雨師)에게 폭풍우로 거침없이 쏟아지게 했다. 그러자 황제가 천녀(天女) 발(魃)을 내려보내 비가 그치게 하였고, 마침내 치우를 죽였다."

기록에 보이듯 응룡은 전쟁의 신 치우와 대립관계인 황제 헌원씨의 협력자로 등장하며 물을 다루는 능력을 이용해 치우를 공격했다. 물론, 응룡의 공격에 치우는 더욱 큰 상대인 풍백과 우사로 반격하여 그 기세가 밀리긴 했지만, 응룡이 물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부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이후, 사람들은 가뭄이 올 때마다 응룡의 형상을 만들에 기우제(祈雨祭)를 지냈다고 한다. 이 역시 〈산해경〉에서 살펴볼 수 있다.

"대황(大荒) 동북쪽 모퉁이에 흉려토구(凶犁土丘)라는 산이 있다. 응룡이 그 남쪽 끝에 사는데 치우와 과보(夸父)를 죽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에 하계에는 자주 가뭄이 들었는데 이때 응룡의 모습을 만들면 큰비가 내렸다."

이와 함께 "응룡이 치우를 죽인 후에, 또 과보를 죽였다. 그리하여 남방으로 가서 살았기 때문에 남방에는 비가 많이 오는 것이다"라는 기록과 "오늘날의 토룡(土龍)은 응룡을 본뜬 것이다"라는 주석 역시 응룡이 비를 내리게 하는 능력을 지니고 있었음을 알려준다. 어쩌면 동양문화 속 최초의 기우제 대상이 응룡일 수도 있는 것이다. 이처럼, 불교 전래 이전부터 이미 비를 다루는 응룡이 존재했으며, 응룡은 용으로 번역된 인도 뱀신 나가와 함께 비를 내려주는 수신 용왕으로 변모한다.

승천을 위한 힘찬 날갯짓

인도 불교의 나가가 코브라(Cobra)에서 출발했듯이 응룡 역시 중국 본토에 자리 잡고 있던 뱀과 악어 등 물과 관련된 파충류를 모티프로 탄생했다. 그렇다면 응룡의 생김새를 살펴보자. 〈산해경〉 삽화 속 응룡은 긴 몸을 지닌 동양 용의 외형을 지니고 있다. 다만 한 가지 다른 점은 처음 언급했듯 두 개의 날개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다.


산해경 도설 응룡.

불교 전래 이전 〈산해경〉서 응룡 등장
응룡과 인도 나가, 수신 용왕으로 변모
조선 후기 사전 유통 결과 불교미술에도
활짝 편 날개, 동자 태운 모습으로 표현

이와 같은 〈산해경〉의 응룡 도상은 점차 정립됐고, 시간이 흘러도 일정한 모습을 보여준다. 물론 일본미술의 응룡은 용머리를 지닌 조류로 표현되긴 하지만 여기서도 날개가 달린 도상적 특징은 빠지지 않는다. 그렇다면 응룡은 어떤 이유로 날개를 지닌 것일까? 다들 알다시피 동양의 용은 날개가 없다. 날개 없이도 충분히 하늘을 날 수 있는 영험함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응룡이 날개를 지닌 이유는 현재까지 정확히 알 수 없다. 앞서 살펴본 〈산해경〉에도 응룡이 물을 다루는 능력만 기록돼 있을 뿐, 자세한 외형에 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추측은 가능하다. 바로 승천이다. 〈산해경〉에서 응룡은 치우와 과보 등 막강한 힘을 지닌 신들과 전투를 벌였고 이에 따라 많은 체력을 소진했다. 이에 자신의 기본 능력인 물을 다루는 일은 가능했지만, 하늘로 승천하기까지는 무리가 있었을 것이다. 그렇기에 응룡은 전투 이후 승천하지 않고 땅에 머무르며 사람들에게 비를 내려줬고 기우제의 대상이자 수신으로 지내게 됐다.

그렇다면 당시 사람들은 응룡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우선, 감사함을 느꼈을 것임은 당연하다. 농경사회에서 비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는 응룡의 상황이 안타까웠을 것이다. 비를 내려주지 않는 일만 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승천할 수 있을 것인데 체력을 소모하면서까지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응룡을 날개 달린 모습으로 표현한 건 아닐까? 우리들을 위해 고생했으니, 이제는 두 날개를 활짝 펼치고 하늘로 승천하라고 말이다. 물론, 이는 필자의 생각일 뿐 아직 학계에서 응룡 도상의 연원이 정확히 밝혀진 건 아니다. 하지만 다양한 상상력을 지니고 많은 연구를 진행한다면 이 또한 마침내 알 수 있을 것임은 분명하다.

사찰에 자리 잡은 응룡

산해경에 등장한 응룡은 〈삼재도회(三才圖會)〉와 〈훈몽도휘(訓蒙圖彙)〉 등 다른 백과사전류에도 실리게 됐고 이에 따라 다양한 주제에 표현됐다. 우리나라 역시 조선 후기 무렵에는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사전류들이 유통됐는데 이 시기와 우리 미술에 응룡이 등장한 시기가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다양한 주제 가운데 응룡을 살펴볼 수 있는 사례는 역시 불교미술이다. 용은 불교를 상징하는 동물이기도 하기에 거리낌 없이 응룡 도상을 사용했을 것이고 불교계 역시 다양한 사전류의 기록과 삽화를 참고했기 때문이다.

영천 은해사 백흥암과 경산 환성사, 대구 파계사 수미단(須彌壇)에는 화려한 장엄 문양이 부조되어 있는데 여기서 두 날개를 활짝 펼친 응룡이 확인된다. 이는 수미단이 불국토(佛國土)를 상징하는 만큼 상서롭고 기이한 동물들이 불국토에 노닐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다.

이와 함께 김천 직지사, 공주 마곡사 사찰벽화에도 응룡을 찾아볼 수 있는데 동자(童子)를 태운 기룡도(騎龍圖)로 표현된다. 이는 응룡이 불교의 동자를 태우고 임무를 수행하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으로, 기존 응룡 도상을 비롯해 중국과 일본미술에서 보기 어려운 독특한 사례다. 이처럼 우리 불교미술의 응룡은 물을 다루는 수신이자 호법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역할을 해내고 있다.

마치며

서양문화 속 드래곤 도상이 정립된 시기는 대략 10세기 정도, 즉 중세시대로 추정하고 있다. 그리스신화 속 괴물과 뱀을 악마로 인식한 기독교의 사례가 긴 시간 동안 존재하다가 드래곤으로 통일된 것이다. 이에 반해 동양의 응룡은 아득히 먼 전국시대에 처음 기록됐고 현재까지도 큰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서양의 드래곤은 사악하고 흉포한 빌런이지만 우리 응룡은 비를 내려주는 수신으로, 불교를 수호하는 호법신 역할을 하기에 그 성격까지도 드래곤과는 정반대이다. 겉모습이 유사하다고 해서 의미까지 같은 건 아니다. 응룡만 봐도 알 수 있다. 날씨가 포근해진 요즘, 우리를 위해 헌신한 응룡을 만나러 사찰로 가보는 건 어떨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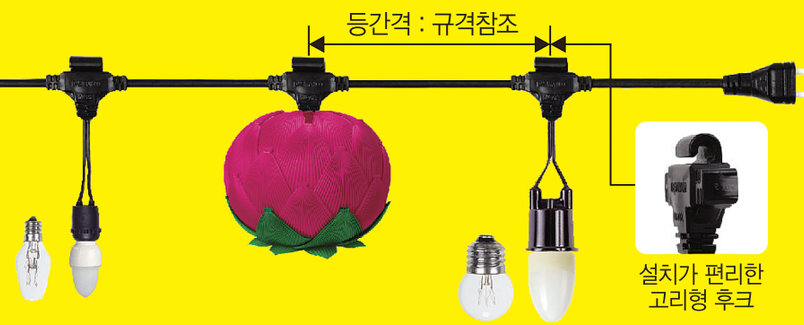
김용덕 작가

사찰 연등 및 전선 법당용, 외곽용



법당 전선시공 전문
승하강 장치시공(신형)

생산에서 시공까지 책임지겠습니다



설치가 편리한 고리형 후크

공단연등(고리용)
노랑(오렌지) 진분홍 백색 연분홍 금색
전선간격
22cm, 25cm, 28cm, 30cm, 40cm, 50cm, 1m, 2m, 3m, 5m, 8m, 10m, 기타주문

제등행렬용품
S형 건전지 초

LED태양광 솔라 (국산정품)

LED전구 국산인증 (정품)
고추구 12E 인지구 26E

도량(만월등)조립식 프레임(간편한 설치 및 높낮이 조절)




안전인증 ISO9001 ISO1400 특허청

정직과 신뢰의 불자기업
불제 대원 산업
BULJE DAEWON CO.LTD

구입문의 031)986-0277~8, 02)2266-2634
032)582-6235~6, 02)2263-2638
문의핸드폰 010-3630-7092
본사 · 공장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모산로 17-1